

국군의 단독작전 승전보...북한군 15사단 궤멸

■ 국군 제17연대의 화령장 전투



남정옥 군사편찬연구소 책임연구원
(yalu5812@hanmail.net)

화령장(化寧場) 전투는 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에서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국군 제17연대와 국군 제1사단이 북한군 제15사단을 기습, 이들의 남하를 지연시킨 1950년 7월 17일부터 25일까지의 공세적 방어 전투를 일컫는다. 하지만 화령장 전투는 제17연대가 단독으로 싸운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닷새간의 전투와 7월 22일 이곳으로 투입된 국군 제1사단과 국군 제17연대가 함께 싸운 7월 22일부터 25일까지의 전투로 구분된다.

여기서는 국군 제17연대가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단독으로 북한군 제15사단과 싸워 막대한 전과를 올린 화령장 전투를 중심으로 기술했다.

화령장 전투는 국군 제17연대가 북한군 제15사단이 속리산 동쪽의 문장대 계곡으로 남하해 경북 상주 정면으로 침공할 때 그 첩보를 미리 입수하고 화령장 북쪽의 상곡리와 동관리 일대에서 매복을 실시한 상태에서, 북한군이 매복 지역으로 접근해 온 것을 보고 기습 공격을 실시해 그들을 격퇴하고 막대한 전과를 거둬 국군 제6사단 제7연대의 동라리 전투에 이어 두 번째로 대승을 거둬으로써 미군에 국군의 용맹을 과시함과 동시에 국군의 사기를 한껏 올린 전투이다.

한편 한미 연합군이 지연작전을 전개할 때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국군의 영동·함창·안동 지역의 제2방어선을 돌파, 낙동강 이북과 이서 지역의 넓은 지역을 점령



화령장은 경북 상주시 화서면에 위치한 작은 마을로 충북 보은·괴산에서 상주로 연결되는 교통의 중심지다.

한 다음 신속히 낙동강을 도하해 8월 15일까지 남한 전역을 점령하고자 했다. 이에 따라 북한군 전선사령관 김책(金策) 대장은 7월 18일 제4차 작전 계획을 수립, 주공을 김천~대구 방면으로 지향하고 각 전선에서 정면 공격과 측면 공격을 연결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이때 김일성은 충주 남쪽의 수안보 온천까지 내려와 김책으로부터 제4차 작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듣고 나서 그 계획을 신속히 실천하라고 독려했다.

김일성 “김천~대구 공격하라” 독려

북한군 전선사령부는 제12사단이 음성~괴산 지구 전투에서 미 공군의 폭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예비인 제15사단을 이 지역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제15사단의 주력이 화령장을 돌파해 상주를 점령함으로써 함창을 자동적으로 점령한 다음 여기서 제15사단과 제1사단을 합류시켜 대구로 진출할 계획이었다.

중동부 전선의 북한군 동향을 주시하고 있던 육군본부에는 화령장과 상주 지역을 적이 점령하게 되면 함창 지역에서 적을 저지하고 있는 국군 제6사단의 퇴로가 완전

차단될 뿐만 아니라 육군본부와 미8군사령부가 있는 대구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정부 축선에서 싸우고 있는 미군의 퇴로가 차단될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에 육군본부는 국군 제17연대를 제1군단에서 제2군단으로 배속하고 7월 17일 06시까지 함창에 도착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7월 16일 보은에 집결한 제17연대 병력은 1개 대대뿐이었고 청주 부근 전투에 참가한 2개 대대는 아직 철수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17연대장은 이를 제1군단장에게 보고하고 우선 보은에 집결한 제1대대(대대장이관수 소령)를 함창으로 출발시키고 제2대대(대대장 송호림 소령)와 제3대대(대대장 오익경 소령)는 집결되는 대로 즉시 후속하도록 했다.

제17연대 제1대대는 7월 17일 04시쯤 병력을 차량에 탑승시켜 함창으로 출발했다. 이때 제1군단 작전참모 김중갑 대령이 차량 행렬을 정지시킨 후 “적이 괴산에서 갈령으로 진출했으니 조심하라”고 했다. 그리고 07시쯤 화령장을 지날 무렵 주민 1명이 나타나 “북한군이 상주 쪽으로 내려갔다”고 말했다. 괴산~화령장~상주를 연

결하는 977번 도로가 있는 것을 몰랐던 제1대대장은 처음에는 이를 믿으려 하지 않았으나 인근 화서 지서로 가서 확인한 결과 그 주민의 제보가 사실임을 확인했다. 이에 제1대대장은 부대를 화령초등학교에 집결시키고 이를 연대장에게 보고했다. 그리고 자신은 적정을 파악하기 위해 이곳 청년단장 김기영의 안내를 받아 상곡리로 향했다.

대대장 일행이 상곡리 일대를 정찰할 무렵 상주 방면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 북한군 병사 1명을 생포했다. 그는 지난밤 상주 방면으로 진출한 북한군 선두대대의 전령으로 ‘대대는 지난밤 소수의 국방군으로부터 사격을 받았으나 그들을 물리치고 17일 08시에 상주를 바라볼 수 있는 고지를 점령했다’는 문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전령은 북한군 제15사단 제48연대(연대장 김치규 대좌) 소속이었고 그를 통해 연대 주력이 후속, 이날 오후 금곡리에서 휴식한다는 것도 알게 됐다.

제1대대장은 북한군이 휴식할 이곳에 매복해 그 주력을 공격하기로 했다. 대대장은 14시쯤 진지 편성을 완료하고 북한군이 오기를 기다렸다. 16시쯤 갈령(葛嶺) 계곡으로 북한군 제15사단 주력의 선두 부대가 나타났다. 도보부대와 함께 40여대의 우마차에 각종 포와 탄약을 싣고 남하하던 북한군은 국군이 매복한 정면의 송계초등학교(현 화령초교 송계분교)와 상곡리 일대에서 휴식을 취했다. 이를 지켜

보던 대대장은 19시 30분 북한군이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저녁 식사를 위해 집결지에 모여들자 사격 명령을 하달했다. 이에 400여 명의 총구가 적을 향해 일제히 불을 뿜었고 박격포와 기관총도 쉴 사이 없이 사격을 가했다.

국군의 기습 공격을 받은 북한군은 제대로 저항 한 번 못한 채 쓰러졌으며 40여 명의 말과 소들이 포성에 놀라 날뛴으로써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제1대대가 1시간 정도 적을 섬멸하는 동안 연대장이 전투 지역에 도착했다. 대대장이 연대장에게 “격멸전을 전개해 적을 완전히 섬멸하겠다”고 건의하자 연대장은 “날도 이미 저물었으니 격멸전은 내일 아침 본대가 도착한 후에 하고 우선은 적이 야음을 이용해 도주하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라”고 했다. 이에 대대장은 북한군의 복상을 저지하고 퇴각을 못하도록 병력을 배치했다.

미 고문관, “통쾌한 전투” 국군 격찬

한편 제17연대의 주력이 7월 18일 새벽 화령장에 도착했다. 이날 10시쯤 연대장은 상곡리의 격전지를 돌아본 후 적의 후속 부대가 있을 것으로 판단, 연대 정보주임에게 갈령 부근의 적정을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명령을 받고 갈령 부근으로 향한 연대 수색대는 12시 30분쯤 자전거를 타고 갈령을 넘어오는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다. 이들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보내는 전령으로서 중요한 문서 2통을 소지하고 있었다. 1통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제48연대장에게 중간 보고를 독촉하는 내용이었

으며 또 다른 1통은 작전명령서로 후속하는 제45연대(연대장 이철룡 대좌)와 함께 김천 방면으로 진출할 준비를 갖추려는 내용이었다.

이 노획 문서를 통해 제17연대장은 북한군 제15사단장이 아직 제48연대가 기습당한 사실을 모르고 있고 조만간 북한군의 후속부대가 이곳을 통과할 것을 알게 됐다. 이에 제17연대장은 화령초등학교에 대기 중인 제2대대를 봉황산 북쪽 기슭으로 진출시켜 매복 공격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이에 제2대대는 화령장에서 동관리로 진출해 그곳에 병력을 배치했으나 7월 19일 오후까지 북한군의 보급 우마차 10여대를 격파한 것 외에는 특별한 적정이 없었다. 그러다 이틀이 지난 7월 21일 새벽녘에 아군 매복 지역으로 접근하는 적에게 기습 공격을 실시했다. 교전을 보고받고 연대장과 함께 온 미 고문관은 “30년 군 생활 동안 이처럼 통쾌한 전투는 처음”이라면서 감탄했다.

제2대대는 14시쯤 소탕작전을 종결했다. 이 전투에서 제2대대는 북한군 356명을 사살하고 26명을 생포했으며 박격포 16문, 대전차포 2문, 기관총 53정, 소총 186정, 무전기 1대, 전화기 1대 등을 노획했다. 반면에 제2대대는 전사 4명, 부상 30명의 피해를 입었다. 제2대대는 노획한 장비 가운데 소총 · 기관총 · 박격포 등을 2.5톤 차량 3대에 적재해 연대본부로 보내고 탄약과 기타 군수품은 폐기 또는 소각 처리했다. 이 전과로 제17연대는 연대장을 비롯해 2600명 전원이 1계급 특진했다.

그 후 국군 제1사단이 제17연대와 임무를 교대해 화령장 북쪽에서 북한군의 진출을 사할 동안 저지한 다음 함창 지역으로 이동했다. 그 결과 북한군은 상주 지역의 진출이 지연되어 문경 지역에서 후퇴 중이던 국군 제2군단의 퇴로를 차단하려 했던 최초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국군은 낙동강 전선으로 철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얻게 됐다. Defense



국군 제17연대가 화령장 전투를 통해 노획한 북한군 무기와 장비.

美-北韓軍 첫 접전... 한미 연합 구축 전환점

■ 미 제24사단 21연대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죽미령 전투

남정옥

군사면찬연구소 책임연구원

죽미령(竹美嶺) 전투는 6·25전쟁 초기 한강 방어선이 붕괴되고 국군이 지연전을 전개하고 있을 때 한국에 최초로 파병된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인 '스미스 특수임무부대' (Task Force Smith)가 1950년 7월 5일 전차 1개 연대로 증강된 북한군 제4사단 2개 연대와 오산 북방 죽미령 일대에서 교전한 방어 전투이다. 이 전투에서 스미스 특수임무부대는 밀려드는 북한군의 보·전부대에 맞서 보·포협동작전으로 6시간 동안 치열한 전투를 벌였으나 북한군의 전차부대를 막지 못하고 안성을 경유해 천안으로 철수했다.

6·25전쟁은 미국에 커다란 충격이었다. 1949년 6월 30일 주한미군의 마지막 부대가 한국에서 철수한 지 불과 1년 만에 미국은 한국에 대규모의 군대를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일어난 6·25전쟁은 국제평화를 유지할 미국과 유엔에 대한 선전 포고였다. 이에 미국은 신속히 대처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소집과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한 결의안 채택, 한국에

대한 지원 결정, 유엔군 파견 등 일련의 조치는 미국이 건국 이후 200여 개의 전투 및 분쟁에 개입한 것 중 가장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조치였다. 미국의 이런 조치는 극동군사령관 더글러스 맥아더 원수의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 설치와 한강 방어선 시찰로 가시화됐다.

이후 맥아더의 전선 시찰 결과에 따른 건의에 의해 미 지상군 파견이 결정됐고 이에 따라 일본 주둔 미 제24사단 제21연대 제1대대가 선발대로 지정되어 한국 전선에 파견됨으로써 '희망이 보이지 않던 한국'에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했다. 반면 전쟁 모의 과정에서 미국의 참전은 없을 것이며, 있다 하더라도 미군이 도착하기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계획했던 북한군에는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기습 남하 기획한 북한군 전략 분쇄

미 제8군의 선견대(先遣隊)로 지명된 제21연대 제1대대장 찰스 스미스 중령은 대대의 B, C중대를 중심으로 밤새 부대를 편성했다. 스미스 부대는 6·25전쟁 발발 1주일 만인 1950년 7월 1일 08시 45분 부산에 도착해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스미스 부대는 이날 20시 다시 기차로

는 명령을 받고 그날 밤 기차로 다시 부대 이동을 해 오산과 평택에 1개 중대씩 배치하고 대대 지휘소를 평택에 설치했다. 그리고 7월 4일에는 사단 포병 제52포병대 대장 밀레로 페리 중령이 A포대를 인솔해와 합류하게 됨으로써 보병(406명)과 포병(134명)을 통합한 특수임무부대를 편성하게 됐다.

이처럼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한국 전선에 투입됨으로써 6·25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한미 연합전선이라는 하나의 큰 전환점을 형성하게 됐다. 이를 계기로 평택~안성선에 전개한 미 지상군이 경부 국도를 중심으로 한 서부 전선을 담당하게 되었고 국군은 그 이동에서 동해안까지 전선을 분담해 공동으로 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스미스 특수임무부대가 부산에 전개한 7월 1일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이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 준장과의 작전 협의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스미스 부대는 7월 4일 시흥방어사령부가 수원에서 평택으로 철수하자 서부 전선의 최전선 부대가 되어 수원을 점령한 적이 공격해 올 것에 대비한 전투 준비를 서둘렀다. '가능한 한 북쪽에서 적을 지연시키라'는 임무에 따라 2회의 정찰까지 실시한 후 평택을 출발, 7월 5일 03시 죽미령에 도착했다.

죽미령에 도착한 스미스 부대는 B중대가 경부 국도를 가로타고 90고지와 117고지를, C중대가 92고지를 점령했다. 105mm 포대(탄약 1200발)는 죽미령 후방 수청리에 포진, 그중 5번포 1문은 대전차 고폭탄 6발과 함께 보병 방어 진지와 포병 진지의 중간 지점으로 추진했다. 이 무렵 북상한 국군 제17연대도 제2대대를



수원에서 죽미령에 이르는 도로.

포병 진지 오른쪽 88고지에 배치했다.

이날 07시쯤 수원 부근에서 북한군 제4사단이 제107전차연대를 앞세우고 1번 국도를 따라 남진하는 것이 관측됐다. 북한군이 8대의 전차를 선두로 죽미령 1.8km까지 접근하자 스미스 부대는 105mm 곡사포 포격을 개시로 선제 공격을 했으나 적 전차는 꿈쩍 않고 미군 방어 진지로 계속 전진해 왔다.

적 전차가 미군 보병 진지 전방까지 접근했을 때 75mm 무반동총이 적 전차를 향해 공격했으나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전진하자 미군은 당황했다. 이때 적 전차를 파괴하기 위해 추진한 5번포에서 발사한 대전차 고폭탄을 맞고 적 선두 전차 2대가 정상에서 정지했다.

09시쯤 후속하던 적 전차는 파괴된 전차를 길옆으로 밀어붙이고 미 보병과의 전투를 회피하면서 4대씩 무리를 이룬 가운데 총 33대의 전차가 죽미령을 통과해 미군 포병이 전개한 방향으로 남하했다.

이에 미군 포병들은 각 포를 도로 방향으로 돌려 적 전차에 직접 조준 사격을 실시하고 2.36인치 로켓포도 대전차 사격에 가담했으나 적 전차를 저지하지는 못했다. 북한군 선두 전차군(群)이 미군에게 응사하며 오산 쪽으로 내려간 지 10여 분이 지난 후 더 많은 적 전차가 접근해 오자 미 포병 일부 병력이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진지 이탈자가 나왔으나 대부분의 병력들은 후속하는 적 전차에 사격을 실시했다. 미군 포병 진지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한 북한군 전차가 모두 오산 방향으로 내려갔을 때 궤도에 포탄을 맞아 파괴된 전차 2대가 도로변에서 있었다.

11시쯤 북한군 전차 3대를 선두로 긴 차량 중대가 뒤따르고 그 뒤로는 수 km에 걸쳐 북한군 보병부대가 미군 보병의 방어 진지 전방 900m까지 접근해 왔다. 이때 스미스 대대장의 사격 명령으로 미군이 야포·박격포·기관총·소화기 등 모든 화기를 동원, 화력을 집중하자 북한군 보병



북한군과 교전했던 스미스 특수임무부대의 죽미령전투전적비.

부대는 주변으로 흩어져 산개했으나 선두 전차는 능선 200m까지 접근해 와 미군에게 전차포 및 기관총 사격을 퍼부었다. 그동안 북한군 보병부대의 일부가 방어 진지의 한쪽 능선을 점령, 지원 사격을 하는 동안 적 주력부대가 죽미령 좌우로 우회 침투했다.

북한군 “미군 참전 전황 몰랐다”

방어 진지에서 북한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지 1시간이 경과했을 무렵 B, C중대가 위협에 처하게 되자 스미스 중령은 철수를 결심했다. 부대는 포위될 상황에 있고 적 전차의 남진 시 미군 보병과 포병 간의 통신망이 두절됨에 따라 포병 지원 사격을 못 받게 되었고, 더구나 기상 악화로 공중 지원도 받을 수 없게 되자 부득이 철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날 아침부터 거의 12시간 동안 죽미령의 진지를 지킨 스미스 부대는 14시 30분 죽미령에서 철수했다. 대대는 B중대의 엄호하에 92고지를 경유해 오산 방면으로 철수했다. 스미스 중령은 B중대와 같이 철수하다가 포병과 합류, 오산으로 철수했고 미군 포병 진지 인근에 배치됐던 국군 제17연대도 평택을 경유해 철수했다. 철수 과정에서 스미스 부대는 북한군 공격으로 병력이 분산되면서 공용 화기를 유기는 등 많은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입었다.

스미스 부대가 안성을 거쳐 천안에 집결했을 때 540명의 병력 중 전사·부상·실종 등 153명의 손실을 입었고 많은 장비를 잃었다. 북한군 손실은 전사 42명, 부상 85명, 전차 파손 4대로 그들의 피해도 컸다. 후일 노획한 북한군 병사 수첩에 ‘우리는 오산에서 미군이 버린 차량을 보았고 미군 병사가 죽어 있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북한군 전차 4대도 넘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오산 전투는 전례 없이 치열한 전투였다’고 쓰여 있어 이날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격전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죽미령 전투는 미군과 북한군의 첫 전투로 북한군으로서는 미 지상군의 참전이 처음으로 확인된 전투였다. 북한군은 그때 미국이 전쟁에 개입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미국의 참전 가능성에 관해 생각지도 않았기 때문에 죽미령의 미군을 보고 몹시 놀랐다. 북한군 제13사단 참모장으로 낙동강 전선에서 귀순했던 이학구 총좌는 “7월 초 미군이 전쟁에 개입한 줄을 몰랐으며 그 사실을 안 북한군은 크게 놀랐다”고 진술했다. 미군도 이 전투를 통해 비로소 북한군의 전력을 과소평가했음을 알고 북한군의 전력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이 전투는 미 지상군 부대가 6·25전쟁에서 최초로 싸운 전투로 그 승패에 관계없이 6·25 전사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매우 크다 하겠다. Defense



판문점 우리 측 '자유집'에서 내려다본 공동경비구역 내 회담장과 북측 판문각 모습.

총성 없는 전장... 눈빛 교전에 긴장감

■ 정전협정 55주년 맞은 판문점 JSA 르포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사진 송영환 국방저널 기자 (yhsong@dema.mil.kr)

1년 중 가장 무덥다는 대서(大暑)인 7월 22일. 태풍 '갈매기'의 심술 끝자락인 듯 아침부터 간간이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습도가 만만치 않게 높아 약간은 후텁지근한 기운 속에 판문점으로 향했다.

55년 전 총성이 멈춘 곳, 남과 북 분단의 현장이자 대화의 현장인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다소간의 설렘과 흥분된 감정이 실려 있어서인지 도착 전부터 10여 년 전에 다

녀왔던 그곳에 대한 억지 기억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자유로를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통일대교. 정면으로 한눈에 들어온 '판문점 9km'라는 이정표가 흥분된 기분을 더욱 부채질하기에 충분했다.



1번 국도를 따라가다 도착한 JSA(공동경비구역:Joint Security Area) 경비대 대 정문 앞. 유엔사 경비대대는 1952년 5월 정전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창설됐다.

부대의 주요 임무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경비하고 군사정전위원회 및 중립국 감독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며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우리 측 마을인 대성동 ‘자유의 마을’의 모든 민정·치안 업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비대대 정훈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조

심스럽게 부대 안에 들어가 브리핑 룸에서 대대 전학 경호병 송준혁(24) 상병으로부터 간단한 부대 소개와 함께 현장 취재 시 주의 사항 등을 들었다.

“대대는 1952년 5월에 창설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우리 측 경비를 맡고 있습니다. 2004년 경비 업무가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 보다 철저한 경비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없이 유엔군과 북한군이 유일하게 자유롭게 왕래했던 판문점은 1976년 8월 18일 발생한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안전을 위해 군사분계선을 설치, 자유 왕래가 중단됐습니다… 판문점 내 간단한 시설을 소개하면 우리 측의 대성동 ‘자유의 마을’ 태극기 게양대는 100m이며 북한 측의 기정동 선전 마을 인공기 게양대는 160m입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비무장지대 안에는 남북한 양측에 각각 하나씩의 마을이 있다. 우리 측 대성동 ‘자유의 마을’과 북한 측 기정동 선전 마을이 그것. 이 두 마을의 거리는 불과 1800m로 맑은 날 웬만한 거리에서는 두 마을의 국기 게양대를 동시에 사진 촬영할 수 있을 만큼 가깝다.

1982년 조성된 북한 측의 기정동 마을은 최초 선전 마을로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으나 개성공단이 들어선 이후 실제로 거주하는 북한 주민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여 분간에 걸친 판문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마친 송 상병은 특히 하루 평균 800여 명이 찾는 판문점 안보견학에 따른 주의 사항을 들려줬다.

송 상병은 “판문점은 관광지가 아닌 군사 지역으로 북한군을 자극하는 일체의 행동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커다란 포즈를 취하거나, 손가락질을 한다거나, 비아냥대는 표정이나 몸짓은 절대 금물”이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최전방이라는 점을 안보 견학단이 인식하고 불필요한 고성과 과격

■ 판문점이란

공식 명칭은 ‘공동경비구역’(JSA:Joint Security Area)이며 ‘판문점’(板門店)은 이 지역의 이름을 말한다. 남한의 행정 구역상으로는 ‘경기도 파주시(구 경기도 장단군) 진서면 어룡리’, 북한 행정 구역상으로는 ‘개성직할시 판문군 판문점리’이나 남북한의 행정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특수한 지역이다.

판문점이란 이름의 유래는 휴전회담 장소가 이곳으로 옮겨지면서 이 회담에 참석하는 중공군 대표들이 이곳을 쉽게 찾아보게 하기 위해 당시 회담 장소 부근에 있던 주막을 겸한 가게(店)를 한자로 적어 판문점(板門店)으로 표기한 것이 그 유래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의 판문점이라면 군사정전위원회 유엔사 측과 공산 측(북한·중국)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를 원만히 운영하기 위해 1953년 10월 군사정전위원회 본부 구역 군사분계선상에 설치한 동서 800m, 남북 600m 장방형의 공동경비 구역을 말한다. 판문점은 정전협정 체결 후 유엔 측과 북한 측 공동경비구역으로 정해진, 전후좌우의 거리가 800m에 불과한 좁은 공간이다. 이곳 판문점은 공식적으로 유엔군과 북한군의 공동경비구역이라고 불리며 남북한 쌍방 간의 행정 관할권 밖에 있는 특수한 지역이다. 정전협정에 따라 유엔사가 관할하는 특수 지역인 셈이다.

JSA는 유엔 측과 북한 측이 각각 6개 초소를 운영하며 35명으로 구성된 경비병을 상시 투입하고 있다. 과거에는 JSA 안에서 양측 경비병들이 서로 오갈 수 있었으나 1976년 8월 18일 북한군의 도끼 만행 사건 이후 안전과 우발적인 충돌 사고 등을 막기 위해 양측 경비병들이 상대방 지역으로 넘어갈 수 없도록 했다. 이로써 정전 이후 유일하게 남과 북이 함께 자유롭게 드나들고 공존했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군사분계선이 그어져 다시 남과 북으로 갈려 오늘에 이르고 있다.



회담장 내부 모습.



회담장 안을 엿보는 북한군.

한 행동 등을 삼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북한군의 생트집은 일반적으로 언론에 알려진 것보다 많고 심하다는 얘기도 대대 관계자가 들려줬다.

매우 사소한 행동 하나에도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들며 생떼를 쓴다는 것. 예를 들어 판문점 출입 기자가 표찰을 안 달았다거나, 안보견학단이 찢어진 청바지를 입었다거나 하는 등의 별별 트집을 다 잡아 1년에 몇 만 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대대 관계자는 “7월 11일 발

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이후 판문점은 최고의 경계 태세에 돌입한 상태”라며 “부대원들은 지금 어느 때보다 신경을 곤두세우며 경비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송 상병과 대대 장교, 주한미군 관계자 등도 이 같은 내용 설명에 부가 설명을 곁들이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 양측의 경비 병력 규모 면을 설명해 주면서 북한군 경비 병력의 실체를 들려줬다.

정전협정에 따라 양측은 병사 30명에 장교 5명을 두도록 돼 있으나 북한군은 전원이 장교(간부)로 구성됐다는 것.

이 같은 정전협정 위반은 1998년 2월 판문점으로 귀순한 북한군 군사대표부 소속 변용관 상위(우리의 중·대위 급 장교)의 폭로로 밝혀졌다.

우리의 심리전 장교 신분인 변 상위는 당시 귀순 과정을 조사받는 과정에서 “판문점의 북한군 경비병은 군 최고의 엘리트로 전원 장교 신분”이라고 폭로, 이전까지 막연하게 짐작만 했던 북한군 경비 병력의 실체를 비로소 확인하게 된 것.

이 밖에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사례를 간단하게

더 소개받은 뒤 판문점으로 향했다.

남북 각각 장교 5·병사 30명 근무

남방한계선을 통과해 2km를 달려가 오전 10시 30분쯤 도착한 ‘자유의 집’. 날씨는 어느새 화창하게 됐고 4층 옥상에 올라 정면으로 바라다본 북측 지역에는 우리 일행을 반겨 주기라도 하듯 북한군 경비 병력이 많이 보였다. 이들 가운데 2, 3명이 망

원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는 모습이 보였다.

공동경비구역 내 회담장은 모두 5개. 하늘색 3개는 JSA 경비대대가 관리하고 나머지 2개의 은색 건물은 북한군 관할. 5개 회담장은 각기 이용 성격을 달리하고 있으며 북한군 측의 한 건물은 경비 병력의 대기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판문각 정면의 오른쪽으로는 북한군 초소 신축 작업이 한창이었다.

제초 작업을 하는 일반 복장의 민간인들의 돌출 행동(월남)을 막기 위해 그들 앞을 3명의 북한군이 가로막아 지켜보고 있었다. 판문점 시설 등에 관한 내용 설명을 들으면서 건넌다본 북한군의 모습에서 특이한 복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은 군사정전위원회의 무실화를 계속 시도하는 가운데 1994년 5월 자기들 멋대로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했다. 이어 1996년 4월 이후 북한 측은 정전협정의 일방적 파기를 선언하며 정전협정에 의해 비무장지대 안에서 무장을 하고 있다는 표시로서 종전 원팔에 ‘경무’라고 쓰여 있는 완장(우리 측 현병 완장과 같음)을 고의로 벗어내고 대신 ‘판문점’이라고 쓰여진 부대 마크를 부착해 착용하고 있는 것이 한눈에 쉽게 보였다.

북한군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북한 관광객 무리가 한눈에 들어왔다. 20여 명 남짓한 이들을



JSA를 찾은 안보견학단.

북한군 경비병들이 안내하는 모습이 바로 눈앞에서 펼쳐졌으며 각 회담장 근처로 북한군이 배치되는 모습도 눈에 잡혔다.

북한군의 안내에 따라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회담장으로 들어가는 관광객 가운데 일부는 내부에 쳐져 있는 커튼을 들춰내며 우리 쪽을 건너다보는 모습도 보였다. 뒤이어 중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 행렬이 뒤를 이었고 한차례 더 관광이 이루어진 뒤 비로소 회담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회담장 출입을 기다리는 가운데 북한 경비병력을 지켜보는 우리 일행 곁에는 JSA 경비병들이 바짝 붙어 보호(?)해주었다.

회담장 안은 예상 외로 넓어 보였고 정중앙에 마이크가 설치된 길다란 책상에 양쪽 4개의 걸상과 가운데 걸상 1개씩이 놓여 있었다. 회담장 양쪽 끝에는 작은 방이 2개 설치돼 있었다. 이 방은 회담 시 우리 말과 영어·중국어로 동시 통역을 하는 방이다. 그리고 테이블 중앙에 설치된 마이크들이 바로 남과 북을 경계 짓는 군사분계선으로 회담장 밖의 너비 50cm, 높이 5cm의 시멘트 턱과 연결돼 실질적인 남북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JSA 경비대대장 정해일(42·육사 46기) 중령은 “2004년부터 공동경비구역 경비 업무를 한국군 주도로 하고 있다. 이는 향후 한미 관계가 한국군 주도로 이루어진다는 상징적 의미”라며 “그래서 우리 대대원들의 임무 수행 의지는 대단하며 언제 어떻게 우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는 최전방으로서 각종 상황 대처 요령 숙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담장 출입에는 원칙이 있다. 북측이 내부로 들어왔을 때는 남쪽 출입구를 잠그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북쪽 출입구를 잠근다. 이는 월남 등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과거 북측에서 자신들의 출입구를 열고 우리 측 경비병을 손으로 잡아 끌어가려는 시도를 한 경우가 발생해 철저히 출입구를 잠그고 있다는 게 대대 관계자의 설명이다.

회담장 안에서만은 ‘월북’ (?)이 가능하

다. 이 안은 군사분계선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남북한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다. 그래서 내부 행동이 모두 감시 카메라로 잡힌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그어진 군사분계선을 과감히 넘어서 회담장 안을 휘젓고 다니는 객기(?)를 부려 봤다.

정전협정 조인한 옛 판문점도 보여

창문 밖으로는 역시 북한군이 회담장 안을 둘러보는 우리의 모습을 연방 기웃거리며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릇한 기분을 뒤로 하고 발길을 ‘8·18 도끼 만행 사건’ 미루나무터와 ‘돌아오지 않는 다리’ 쪽으로 돌렸다. 우리 측 초소 정면 북한 쪽으로 55년 전 역사적인 정전협정 조인식을 가진 옛 판문점의 모습이 희미하게 잡혔다.

지금은 이 건물을 북한에서 ‘평화박물관’으로 조성, 관광 코스로 이용하고 있다고 대대 관계자가 설명했다. 판문점에서 불과 3km 거리의 개성공단도 희미하게나마 건물 윗부분이 보였다.

초소 아래로 도끼 만행 사건의 미루나무터가 자리하고 있었으며 그 자리에는 당시 사건으로 숨진 보니파스 대위와 배리트 중위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다. 추모비 아래 둥근 시멘트판은 당시 나무의 둘레를 나타낸다. 그리고 몇 미터 앞

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가 보였다. 군사분계선이 한가운데를 지나는 이 다리는 개성에서 공동경비구역으로 출입하는 다리로 사용되었으나 1976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 이후 폐쇄되어 활용되지 않고 있다.

다리 건너편의 북한군 초소는 공동경비구역 외곽 지역으로 북한 측은 권총 이외에도 각종 중화기로 무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경비구역 내 우리 측 초소는 경비병이 권총으로만 무장해야 하므로 따라서 화력상의 차이로 경비병 근무는 서지 않고 감시용 관측 장비로 대체하고 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면서 이 다리를 통해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는데 남과 북의 포로들이 이 다리 위에서 일단 방향을 선택하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고 해 ‘돌아오지 않는 다리’로 불려지고 있다. 이 다리를 끝으로 예정된 판문점 취재를 모두 마쳤다.

피약별 아래 둘러본 남북 공존의 그늘, 판문점. 정전협정 55주년을 맞아 찾아본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은 예상대로 정중동의 차가운 기운이 감돌기는 했지만 55년의 시간이 멈춰 선 듯 예의 살벌한 눈빛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고, 언제 터질지 모를 전의감마저 등골을 스쳐 ‘끝나지 않은 전쟁’의 교훈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 개운치만은 않았던 이번 취재기였다. Defense



1976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 이후 남북 왕래가 중단된 '돌아오지 않는 다리'.

2년간 765회 신경전 벌이며 협정 조인 이뤄

■ 군사정전위원회 임무와 활동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올해로 55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을 조인한 뒤 반세기를 훌쩍 넘기면서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전쟁을 끝낸 종전(終戰) 상태가 아닌 서로가 교전을 잠시 멈춘 정전(停戰) 상태이다.

올해 7월 27일은 공교롭게도 음력으로 6월 25일 일요일이다. 6·25전쟁은 우리 민족 최대의 동족상잔의 비극이다. 세계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크고 처절한 전쟁이었다. 국제연합(유엔)이 창설된 이후 유엔군의 깃발 아래 처음으로 세계 각국이 참전한 전쟁이기도 하다.

그러나 전쟁이 잠시 멈췄을 뿐 한반도의 허리는 여전히 155마일 철책으로 두 동강난 채 서로를 향해 총부리를 겨누면서 총성 없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정전협정은 전쟁의 종결을 의미하는 ‘평화조약’이나 ‘강화조약’과 같은 성질이 아니라 양측 간 적대 행위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한시적 협정에 불과하다. 전투는 멈췄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미완의 상태라는 얘기다.

한반도는 현재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자 세계 군사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중무장한 상태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전쟁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전쟁 상태’라고 해도 틀리지 않으며, 그래서 평화통일의 국민 염원은 아직까지 요원한 게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분명한 현실은 남북 경제 협력 및 교류의 폭이 커지면서 금강산 관광이 붐을 타고 있는 가운데 7월 11일 새벽에 발생한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에서 여실히 확인되고도

남아 55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북한의 ‘안하무인·막가파식 행태와 적반하장의 생트집 먹지 논리’에 새삼 질리다 못해 상대하고 싶지도 않을 만큼 화가 치밀어 오르게 된다.

협정 관련 사항 양측이 조사 처리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는 정전협정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기구로 정전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정전협정을 위반한 어떤 사건이든 협의·처리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정위는 10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5명은 유엔군사령관이 임명하고 나머지 5명은 북한과 중국군사령관이 공동으로 임명하게 된다.

군정위 산하에는 비서처와 10개의 공동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왼쪽) 미 육군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감시소조를 두고 협조를 받게 되어 있다. 1개의 공동감시소조는 4명 내지 6명의 영관급 장교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이 중 반수는 유엔군사령관이, 반수는 북한 및 중국군 사령관이 임명하게 된다.

군정위 본부는 판문점(북위 37도 57분 29초, 동경 126도 0분 00초) 부근에 설치하고 있는데 정전협정에는 군정위의 쌍방 수석위원이 합의를 거쳐 그 본부를 비무장지대 내의 다른 한 지점으로 이설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군정위는 정전협정의 모든 규정에 대한 어떤 위반 사건이든 협의·처리하기로 되어 있고 중립국감독위원회로부터 받은 정전협정 위반 사건에 관한 일체의 조사 보고 및 기타 보고, 그리고 회의 기록은 즉시 쌍방 사령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외에도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전쟁포로송환 위원회와 실향민간귀향협조위원회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감독·지도할 임무도 갖고 있다.

정전협정에서 기록하고 있는 군정위 관련 내용은 대충 이와 같다.

군정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전협정 체결 과정을 반드시 들여다봐야 한다.

1951년 6월 23일 유엔 주재 소련 대표인 말리크가 유엔 라디오 특집 방송을 통해 휴전을 정식 제의했다. 이에 대해 일주일 뒤인 6월 30일 리지웨이 유엔군사령관이 휴전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 7월 10일 개성의 내봉장에서 제1차 휴전회담이 열렸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조인되기까지 만 2년간에 걸쳐 본회담 159회를 비롯해 765회에 이르는 각종 회담을 지루하게 가지면서 밀고 당기는 신경전과 함께 양측 간 국토 확보를 위한 치열한 전투를 계속 벌였다.

유엔 측과 공산 측은 1951년 11월 7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각각 2km, 즉 폭 4km의 비무장지대 설치에 대한 합의를 보게 된다. 이후 쌍방 간 남한 내 반공 포로

석방 문제 등을 이유로 다시 전면전의 위기까지 치닫다가 1953년 7월 27일 드디어 정전협정을 체결하는 순간을 맞이한다.

정전협정은 전 세계 언론의 집중 조명 아래 클라크 유엔군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된다.

정전협정 조인식은 이날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중장과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이 서명하면서 이루어졌다.

서명을 마치기 무섭게 서로 간 목레나 관례적인 합동 기념 촬영도 없이 양측은 대표들을 이끌고 판문점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맥없이 끝나 버렸다. 3시간 뒤인 오후 1시 유엔 기지 내 문산극장에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정전협정에 확인 서명을 했으며 김일성은 이날 오후 10시 평양에서 서명했다. 펑더화이는 다음 날인 7월 28일 오전 9시 30분쯤 개성에서 서명함으로써 정전협정 조인 절차는 모두 끝났다. 이로써 3년 1개월 2일, 1129일간 지속된 6·25전쟁은 정전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정전협정 조인으로 한반도는 전투는 일단 멈췄으나 전쟁은 끝나지 않은 상태가 돼 버렸다. 정치 지도자가 아닌 양측의 군사령관들이 맺은 정전협정의 속사정은 어떻게 진행됐으며 한반도의 정전 체제 유지와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감시하게 되는 군정위의 활동이 지금까지 55년간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정전협정’ 2년 전 DMZ 설치 합의

앞서도 설명했듯이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전협정 체제를 운영·유지하는 실질적 기구가 유엔사 군정위다.

군정위는 정전협정 조인 후에도 쌍방 사령관을 대신해 총 30개 항목을 쌍방 간 합의해 정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군정위

는 정전협정 위반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를 통해 사건 확대를 방지하고 문제를 해결해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정전협정에 명시된 군정위의 임무는 ▲정전협정 이행 감독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협의 및 처리 ▲군정위 본회의 및 기타 회의의 주관 ▲정전협정의 수정 및 증보에 대한 건의 ▲필요한 절차 및 규정 채택 ▲포로 및 유해 송환 업무 처리 ▲공동감시소조 운영 ▲쌍방 최고사령관 간의 대화 통로 유지 등으로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군정위가 수행하고 있는 임무는 다소 추가된 부분이 있다.

북한군과 회담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북한군과 회담하며 유엔사 관할 지역에서 운영되는 아군 GP·OP를 점검하며 남북한 교류를 위해 군사분계선을 통과하는 인원 및 물자에 대한 통행 승인이 들어 있는 것.

그러나 북한군은 군정위의 무실화 책동에 광분하고 있는 상태로 유엔사 측에서만 군정위 위원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태다. 1994년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한 것을 비롯, 같은 해 12월 15일 군정위 중국 대표단을 베이징(北京)으로 축출하는 등의 망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

유엔사 관계자는 “정전협정 이행의 감시·감독 기구인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을 중단시켜 정전협정 체제를 무력화하는 것이 북한의 기도”라며 “유엔사의 기본 원칙은 북한 측의 일방적인 조치 수용을 거부하고 현재의 정전협정을 확고히 준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군정위는 정전협정이 정치적 협의를 통해 다른 협정으로 대체될 때까지 현재 수행하는 임무에는 변함이 있을 수 없다.

특히 정전 체제가 유지되는 한 군정위는 계속 존속돼야 하며 한반도의 전쟁 억제와 평화 안정 등을 보장하는 데도 그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Defense

北 55년간 저지른 협정 위반 42만 건

■ 북한군 판문점 만행 대표적 사례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 정각, 제 159차 본회의장인 판문점 정전협정 조인 식장의 동쪽 입구로 유엔군 수석대표 해리슨 미 육군중장 일행이 입장하고 서쪽 입구로 공산군 수석대표 남일 북한군 대장 일행이 들어왔다. 양측 수석대표는 국어·영어·중국어로 된 전문 5조 63항의 협정 문서 9통과 부분 9통에 각각 서명했다. 10시 12분 서명을 마친 양측 수석대표는 자리에서 일어나자 잠시 시선을 마주했을 뿐 입을 열지 않고 퇴장했다.

3년 1개월 2일, 1129일간 지속된 6·25 전쟁이 정전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역사적인 정전협정의 조인식은 이렇게 간단히 끝났다. 세계 역사상 가장 긴 회담 기록을 남긴 정전회담. 그리고 55년이 흐른 2008년 7월 27일, 양측이 서명한 정전협정 문서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려는 북한군의 횡포와 만행 등은 끊임없이 계속돼 정전협정 위반 각종 도발 행위가 무려 42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북한군의 만행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를 되돌아본다.

8·18 도끼 만행 사건

32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정전협정 이후 최악의 사건이 발생한다. 북한군이 휘두른 도끼에 의해 미군 2명이 무참히 살해된 1976년의 '8·18 도끼 만행 사건'.

8·18 도끼 만행 사건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북한군의 기습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살해된 사건을 말한다.

이날 오전 10시 45분쯤 미군 장교 2명과 사병 4명, 한국군 장교 1명과 사병 4명 등 11명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돌아오지 않는 다리' 남쪽 유엔군 측 제3초소 부근에서 시야를 가리는 미루나무 가지를 치는 한국인 노무자 5명의 작업을 감독·경비하고 있었다. 당시 유엔군 측인 미군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의 제5관측소에서 제3초소와 비무장지대를 관측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군 3개 초소에 둘러싸인 제3초소 부근에 약 12m에 이르는 미루나무 가지가 무성해 이를 제대로 관측할 수 없었고 북한군에 의한 미군 납치를 우려해 이날 가지치기 작업을 수행한 것이었다.

이때 북한군 장교 2명이 15명의 사병을 인솔하고 나타나 미군 측에 작업 중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계속하자 11시쯤 수십 명의 북한군 사병들이 트럭을 타고 달려와서 몽둥이와 유엔군 측 노무자들이 나무 밑에 두었던 도끼 등을 휘두르며 기습적으로 공격했다. 이들은 유엔군 측 지휘관과 장병들에게 집중 공격을 가해 경비중대장 보니파스 대위와 소대장 배러트 중위가 이마에 중상을 입고

피살되었다. 이 밖에 미군 사병 4명, 한국군 장교와 사병 4명 등이 중경상을 입었고 유엔군 측 트럭 3대가 파손되었다. 정전협정 조인 이후 23년 만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안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초유의 참사가 일어난 것이다.

폴 버니언 작전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자 한반도는 즉각 긴장 상태로 돌아올랐다. 유엔군사령관을 겸하고 있었던 주한미군사령관 스틸웰은 '데프콘 3' (예비 경계 태세)을 발동하고 미군방송을 통한 임시 발표에서 휴가 중이거나 부대를 떠나 있는 전 장병에게 즉시 복귀하도록 명령했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데프콘 3'이 발동되기는 이때가 처음이었다. 그리고 미루나무 절단 작전 때에는 '데프콘 2' (공격 준비 태세)까지 올라갔다.

이에 맞서 북한도 김일성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의로 인민군과 예비군 격인 노농적위대·붉은청년군위대 등에 전투 태세에 준하는 명령을 하달했다. 그리고 전국에 '북풍 1호' (준전시 상태)를 선포해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로 치달았다.

미국의 포드 행정부는 긴급 참모회의를 열고 '위싱턴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스틸웰 사령관의 제안에 따라 문제가 된 미루나



전 세계를 경악케 한 '8·18 도끼 만행 사건'.



미루나무 절단 작전.

무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이 작전은 미국의 전설적인 나무꾼 이름을 따 ‘폴 버니언 작전’ (Operation Paul Bunyan)으로 명명되었고 1976년 8월 21일 오전 7시 강력한 무력 시위를 동반해 전격 단행되었다.

미루나무 절단 작전에는 태권도 유단자로 구성된 한국군 특전사 장병들이 투입되었고 1사단 수색대도 참여했다. 당시 특전사 장병들은 ‘돌아오지 않는 다리’ 입구에서 경계 근무를 담당했다.

미국 본토와 괌 기지, 일본 오키나와(沖繩) 미 공군 기지에서 전투기와 폭격기 등이 날아왔고 일부는 한반도 상공을 선회하기도 했다. 미 7함대 소속 항공모함 미드웨이호가 순양함 등 중무장한 5척의 호위함을 거느리고 동해를 북상해 북한 해역으로 이동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교전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인 전쟁 계획인 일명 ‘우발 계획’ 까지 수립했다. 그러나 당시 북한군에는 ‘도발하지 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았다. 미루나무가 절단되기까지 북한군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었다.

작전 종결 후 북한은 긴급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회의를 요청, 김일성의 ‘유감 성명’을 전달했다. 북한의 유감 표명은 6·25전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처음에 미국은 북한의 성명이 잘못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다가 24시간 만에 이를 수락했다.

이후 북한군과 유엔사는 판문점에서 열린 군사정전위원회 제446차 비서장회의에서 판문점 ‘공동 경비’를 군사분계선에 따라 ‘분할 경비’할 것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군사분계선 남쪽에 있었던 북한군 4개 소소가 철거되었고 북한군이 통로로 사용하던 ‘돌아오지 않는 다리’는 지금까지 통행이 차단되고 있다. 또 6·25전쟁 이후 유일하게 남북한이 공존하던 판문점에는 그 후 회의장 건물 구역에 너비 50cm, 높이 5cm의 시멘트 포장 경계선이 만들어졌다. 그 밖의 부분은 가로·세로 10cm, 높이 1m

의 시멘트 기둥이 10m 간격으로 세워지게 되었다. 휴전선이 다시 그어지게 된 것이다.

북한군 군사분계선 월선 충격

1976년 8월 18일 도끼 만행 사건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의 양측 경비병들 간에 충돌은 사라졌다가 1984년 11월 23일 공동경비구역에서 처음으로 양측 경비병 간에 총격전이 벌어지는, 피해 규모로만 봐서는 최대의 사건이 터졌다.

소련 관광객 16명을 안내하는 임무를 맡은 평양 주재 소련 특파원 마투조크가 이날 오전 11시 35분쯤 본회의장 옆 군사분계선을 넘어 우리 측 지역으로 탈출, 구원을 요청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에 한국군 경비병들은 그를 대피시키게 되었으며 이에 당황한 북한군이 월남을 저지하고자 권총을 발사하며 경고했으나 실패하게 되자 북측 경비병 20여 명이 곧바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 150m까지 침범, ‘자유의 집’ 앞 연못(현재는 정원)까지 내려오면서 총격을 가하자 우리 측 경비병들이 이에 응사, 약 20분간 총격전이 벌어졌다. 북한군의 총격에도 불구하고 소련인은 무사했으나 이 총격전으로 인해 한국군 장병기 상병(당시 일병)이 사망하고 미군 1명이 부상하는 희생이 뒤따랐으며 북한군도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당하는 피해를 입었다.

총격전이 끝난 후 유엔사의 양해 아래 북한 측에서는 군사분계선을 다시 넘어와 사망자와 중상자들을 모두 후송해 갔다.

한편 유엔사 경비대대에서는 교전 중 순직한 장병기 상병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당시 전투 현장에 비석을 세워 넋을 위로하고 캠프 보니파스 내 당시 거주했던 막사를 ‘장막사’로 명명해 그 뜻을 기리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군은 공동경비구역 내 북측 지역에 규정보다 많은 인원을 초과 투입하거나 무장 병력과 중화기를 반입하는 등 수시로 협정을 위반하는 도발을 자행했



미루나무터에 세워진 보니파스 대위와 배러트 중위의 추모비

다. 심지어 1997년 10월 17일에는 대성동 영농 지역 인근 야산에서 도토리를 줍던 대성동 주민 홍승순(여·67) 씨와 아들 김용복(41·경기도 부천시) 씨를 강제로 납치, 유엔사 측의 항의에 따라 10월 21일 2명을 인계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북한군의 생떼와 억지 주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7월 초 북한군이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책상을 걷어차고 회의장에 들어오는 남측 안보견학단이 북측을 보지 못하도록 창문을 가리는 소동을 피워 미군 측이 엄중 항의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 또 얼마 전에는 “남측 경비병들이 눈을 부릅뜨고 북측 경비병을 노려보는 등 적대 행위를 감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는 군사분계선을 가운데 두고 기다란 책상이 놓여 있으며 6·25전쟁 때 한국에 병력을 파병한 15개 유엔 참전국의 깃발을 담은 액자가 걸려 있다.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서는 상대방을 자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결국 북측이 최근 군사정전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런 불문율을 깼다는 것이다.

유엔사 관계자는 “미군이 담당했던 공동경비구역 경비 임무가 2004년 한국군으로 이양됐다”며 “판문점에서는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신경전의 불씨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Defense

인터뷰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장용구** 소장

“한반도 평화 · 안정 유지 위해 역량 결집”



유호상 국방저널 기자 <hosang61@dema.mil.kr>

사진 송영환 국방저널 기자 <yhsong@dema.mil.k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 55년간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있을 뿐이지 끝나지 않았으며 언젠게 전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이자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참모장 겸 지상군사령부 참모장인 장용구(육사 32기·56) 소장은 정전협정 체결 55주년을 앞두고 7월 17일 서울 용산구 유엔사 본청 사무실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2008년 4월 22일 취임한 장 대표는 1953년 7월 27일 조인된 정전협정은 단지 전쟁을 잠시 중단한 것뿐이지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한다”며 “다른 국가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주지 않는다.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올해는 정전협정 55주년(7월 27일)입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이하 군정위) 수석대표로서 소회가 많으실 줄 압니다.

“정전협정은 1953년 7월 27일 양측의 군 최고사령관인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일성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원 펑더화이(彭德懷)가 서명한 협정입니다. 정전협정은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군정위 수석대표 장용구 소장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인 장용구(55·육사 32기) 육군소장은 지난 4월 22일 취임했다.

장 소장은 1976년 포병 소위로 임관해 청와대 국방비서관실 파견 근무, 3군사령부 통합화력부장, 제1포병여단장, 3

군사령부 화력부장, 57사단장 등을 역임했다.

3군사령부 통합화력부장 재직 때는 북한의 장사정포를 궤멸시키는 임무를 맡고 있는 대화력전수행본부가 미군에서 한 국군으로 이관될 때 관련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기도 했다.

정전협정이 유효하며 이는 곧 6·25전쟁이 종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55년 동안 정전을 유지하고 있지만 아직 전쟁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정전 체제를 유지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다양성을 수용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경제적으로 다른 나라를 도와줄 수 있는 국력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바탕에는 6·25전쟁 시 피 흘려 우리를 도와준 국제연합군의 헌신과 전후 복구에 헌신의 노력을 다했던 선배님들, 그리고 배고픈 시절을 이겨 내고 열심히 살아온 우리 기성세대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단, 남북한이 하나 되어 55년 동안 노력했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전협정이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되어 한반도에 영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 군정위 수석대표가 하는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국군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군정위 수석대표는 1991년부터 한국군 장성이 임명되고 있으며 임기는 1~2년으로 한국군 장성 인사와 연계되어 국방부장관이 유엔 군사령관에게 임명 요청을 하고 유엔군사령관이 동의하면 임명되며 철저히 신분이 보장됩니다. 군정위 수석대표는 유엔사 소속이기 때문에 유엔군사령관의 지휘하에 임무를 수행합니다. 따라서 저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군정위 업무에 대해서는 유엔군사령관 지침을 따르지만 대한민국의 국익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국방부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군들로만 구성된 군정위 비서처에서 정전 체제 유지에 대한 실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비서처 인원들이 즐겁게 임무

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시에 업무 지침을 주고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경비구역(JSA) 대대에는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북한군과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항상 긴장된 상태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15개 유엔사 회원국 대사 및 연락단장과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과는 두터운 친분을 유지해 그들 국가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우리의 국익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가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 군정위의 임무와 이 조직이 한반도 평화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군정위는 정전협정 이행 감독, 정전협정 위반 사건의 협의 및 처리, 정전협정의 수정 및 증보에 대한 건의, 필요한 절차 및 규정 채택, 쌍방 최고사령관 간의 대화 통로 유지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북한군은 42만 5500여 회에 걸쳐 정전협정을 위반했습니다. 군정위에서는 북한군의 정전협정 위반

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군과 회담 시와 정전 체제 유지를 위한 활동 시에 유엔사 회원국 대표들이 함께 활동해 유엔사가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군의 도발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2차 연평해전 이후 북한군이 정전협정을 위반했다고 강력히 항의하고 침몰된 참수리호를 인양하는 작전에 유엔사 회원국 대표와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들이 현장에 위치, 북한군의 추가적인 도발 행위를 방지하고 인양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기여했습니다. 다시 말해 유엔사와 군정위는 정전협정 체결 이후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북한군의 수많은 도발 행위가 전쟁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과 관련해 예상되거나 예정된 군정위의 위상이나 임무 등의 변화는 있는지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정위의 위상이나 임무의 변화는 있을 수 없습니다. 즉, 군정위는 정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조직이므로 정전협정이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갖기 때문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군정위의 위상이나 임무가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군정위에 대해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군정위를 소개해 주시지요.

“군정위는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정전협정 체제를 운영·유지하는 실질적 기구입니다. 다시 말해 정전협정 이행을 감독하고 정전협정 위반 사건을 협의·처리하며 정전협정의 수정·증보에 대해 쌍방 최고사령관에게 건의하고 필요한 절차와 규정을 채택하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전협정상에는 군정위, 중립국감독위원회(별도 기사 참조), 중립국송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중립국송환위원회는 포로 송환 문제가 해결된 이후 1954년 2월 1일에 해체됐으며 현재는 군정위와 중립국감독위원회만 있습니다.

북한군은 1991년 한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을 빌미로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1994년 일방적으로 판문점 대표부를 설치, 군정위를 해체해 중국 인민군 대표를 축출시켰으며 공산 측에서 활동하던 중립국감독위원회 대표도 1995년에 축출시켰습니다. 그러나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정전협정이 계속 유효하기 때문에 북한군이 모든 수단을 동원, 군정위 기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해도 정전 체제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군은 공산 측 군정위를 해체하고 일방적으로 설치한 판문점 대표부에서 군정위가 수행했던 대부분의 임무를 그대로 수행하고 있습

니다. 예를 들면 군정위 본회담 대신에 유엔사와 북한군 간 장성급 회담이 필요시 개최되고 있으며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와 유엔사 비서처 간 대령급 회담과 참모급 회담이 필요시 수시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정위는 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기구로서 살아 활동하는 조직입니다.”

– 북한의 한국군 수석대표에 대한 반응은, 그리고 이에 따른 대응 전략도 있으시지요?

“북한군은 1991년 한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한 것에 대해 크게 반발했습니다. 즉, 북한군은 한국군 장성이 군정위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묵인할 수 있으나 한국군 대표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전협정 당사자가 아니므로 한국군 장성이 유엔사 측 수석대표로 임명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수석대표에 대한 신임장 접수 및 군정위 본회의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 임명은 유엔군사령관의 고유 권한이며 유엔군사령관은 참전국들과 한국군을 대표해 정전협정에서

명했기 때문에 한국군은 당연히 정전협정 당사자이므로 한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북한군의 이런 행위는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켜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기 위해 정전 체제를 운영·유지하는 실질적 기구인 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입니다. 따라서 유엔사에서는 한국군 장성을 군정위 수석대표로 임명하는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성급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장성급 회담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고 필요시 수시로 북한군 판문점 대표부와 대령급(비서장급) 및 실무 참모급 회담을 개최하는 등 융통성 있게 대처하면서 군정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수석대표께서 바라보는 북한의 대화 의지와 판문점 등에서 지켜본 북한군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북한군은 그들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할 시에는 유엔사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도 유엔사 군정위와 북

역대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수석대표 명단

순차	계급	성명	소속	보직 기간	순차	계급	성명	소속	보직 기간
1	중장	Turney Joy	미 해군	1951.7 ~ 1952.5	18	소장	Marion L. Dawson	미 해병	1960.5.1 ~ 1960.10.31
2	"	William K. Harrison	미 육군	1952.5 ~ 1953.7	19	"	Richard Collins	미 육군	1960.11.1 ~ 1961.4.30
3	"	Blacksher M. Bryan	미 육군	1953.7.27 ~ 1953.10.20	20	"	Robert H. Warren	미 공군	1961.5.1 ~ 1961.10.31
4	소장	Julius K. Lacey	미 공군	1953.10.21 ~ 1954.4.30	21	"	Robert T.S. Keith	미 해군	1961.11.1 ~ 1962.4.30
5	"	Alber E. Jarrel	미 해군	1954.5.1 ~ 1954.6.11	22	"	James R. Winn	미 육군	1962.5.1 ~ 1962.10.31
6	"	Thomas B. Brittain	미 해군	1954.6.12 ~ 1954.11.3	23	"	Joseph E. Gill	미 공군	1962.11.1 ~ 1963.4.30
7	"	Leslie D. Carter	미 육군	1954.11.4 ~ 1955.5.3	24	"	George H. Cloud	미 해병	1963.5.1 ~ 1963.10.31
8	"	Harlan C. Parks	미 공군	1955.5.4 ~ 1955.11.3	25	"	Robert F. Seedlock	미 육군	1963.11.1 ~ 1964.4.30
9	"	Walter E. Moore	미 해군	1955.11.4 ~ 1956.5.1	26	"	Cecil E. Combs	미 공군	1964.5.1 ~ 1964.10.31
10	"	Robert G. Gard	미 육군	1956.5.2 ~ 1956.10.31	27	"	Paul P. Blackburn Jr.	미 해군	1964.11.1 ~ 1965.2.17
11	"	Matthew K. Deichelman	미 공군	1956.11.1 ~ 1957.4.30	28	"	William P. Yarborough	미 육군	1965.2.18 ~ 1965.10.4
12	"	Homer L. Litzenberg	미 해병	1957.5.1 ~ 1957.10.31	29	"	Laurence E. Schlanser	미 육군	1965.10.6 ~ 1965.10.14
13	"	Olaf H. Kyster	미 육군	1957.11.1 ~ 1958.4.30	30	"	Harry J. Sands Jr.	미 공군	1965.10.15 ~ 1966.4.14
14	"	Albert T. Wilson	미 공군	1958.5.1 ~ 1958.10.31	31	"	Joseph O. Butcher	미 해병	1966.4.15 ~ 1966.10.31
15	"	Ira . Nunn	미 해군	1958.11.1 ~ 1959.4.30	32	"	Richard G. Ciccolella	미 육군	1966.11.1 ~ 1967.4.30
16	"	William S. Biddle	미 육군	1959.5.1 ~ 1959.10.31	33	"	Marvin C. Demler	미 공군	1967.5.1 ~ 1967.10.26
17	"	Sam Maddux Jr.	미 공군	1959.11.1 ~ 1960.4.30	34	"	John V. Smith	미 해군	1967.10.27 ~ 1968.4.29

정전협정 조인서 서명한 탁자 유엔사에 있다



정전협정서 서명 때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이 사용했던 가로 1m, 세로 1.5m 크기의 탁자.

1953년 7월 27일 6·25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정전협정 조인서를 앉아서 사인했던 탁자가 서울 용산구 유엔사 본청 2층 중앙 복도에 전시돼 있다.

이 탁자는 당시 유엔 기지 내 문산극장에서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이 정전협정서에 확

인 서명했던 탁자로 의자와 함께 전시돼 있다.

당시 클라크 대장은 자신의 보좌관들과 브리스코 극동해군사령관, 앤더슨 제5공군사령관, 웨일랜드 극동공군사령관, 테일러 제8군사령관, 최덕신 한국군 대표, 그리고 16개국 참전 대표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전문 5조 63항으로 된 협정 문서에

확인 서명했다.

클라크 대장은 즉, 한반도에서 정화(停火)를 유지하고 쌍방 간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근거인 정전협정서에 유엔 참전 16개 회원국 군대와 한국 군대를 대표해 이 탁자에서 서명한 것이다.

협정조인문 하단에는 유엔군사령관 클라크 대장과 공산군사령관 김일성, 평덕화이(彭德懷)의 서명이 있고 그 밑에 정전회담 양측 수석대표인 해리스 중장과 남일 대장의 서명이 있다.

한편 정전협정의 정식 제목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다.

본문 구성은 서언을 비롯해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치', 제2조 '정화(停火) 및 정전(停戰)의 구체적인 조치' (군사정전위원회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등), 제3조 '전쟁 포로에 관한 조치', 제4조 '쌍방 관계 정부들에의 건의', 제5조 '부칙' 등으로 나누어져 있다. 특히 부칙은 적당한 협정으로 정전협정이 교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분명히 명시해 놓고 있다.

순차	계급	성명	소속	보직 기간	순차	계급	성명	소속	보직 기간
35	소장	Gilbert H. Woodward	미 육군	1968.4.30 ~ 1969.1.31	53	소장	J. G. Storms	미 해군	1981.7.13 ~ 1983.7.14
36	"	James B. Knapp	미 공군	1969.2.1 ~ 1969.7.27	54	"	Warren Kelley	미 해군	1983.7.15 ~ 1984.3.20
37	"	Arthur H. Adams	미 해병	1969.7.28 ~ 1970.2.4	55	"	Charles F. Horne	미 해군	1983.4.21 ~ 1984.10.9
38	"	James H. Skeldon	미 육군	1970.2.5 ~ 1970.8.2	56	"	William T. Pendly	미 해군	1984.10.10 ~ 1989.2.16
39	"	Felix M. Rogers	미 공군	1970.8.3 ~ 1971.7.23	57	"	Larry G. Vogt	미 해군	1989.2.17 ~ 1991.1.11
40	"	Francis D. Foley	미 해군	1971.7.24 ~ 1972.2.14	58	"	James F. Record	미 공군	1991.1.13 ~ 1991.3.24
41	"	Raymond P. Murphy	미 육군	1972.2.15 ~ 1972.8.10	59	"	황 원 탁	한국 육군	1991.3.25 ~ 1995.8.30
42	"	Rolten H. Anthis	미 공군	1972.8.11 ~ 1973.2.5	60	"	이 석 복	한국 육군	1995.9.1 ~ 1996.7.30
43	"	Fred E. Haynes Jr.	미 해병	1973.2.6 ~ 1973.8.12	61	"	차 기 문	한국 육군	1996.7.31 ~ 1998.11.12
44	"	Thomas U. Greer	미 육군	1973.8.13 ~ 1974.1.31	62	"	하 재 평	한국 육군	1998.11.13 ~ 2000.5.11
45	"	W. E. Mcleod	미 육군	1974.2.1 ~ 1974.11.17	63	"	안 광 찬	한국 육군	2000.5.12 ~ 2001.5.6
46	"	Henry S. Morgan Jr.	미 해군	1974.11.18 ~ 1975.4.20	64	"	송 영 근	한국 육군	2001.5.7 ~ 2003.4.20
47	"	William L. Webb Jr.	미 육군	1975.4.21 ~ 1975.7.1	65	"	이 성 규	한국 육군	2003.4.21 ~ 2003.10.19
48	"	James C. Smith	미 육병	1975.7.2 ~ 1976.6.27	66	"	박 흥 환	한국 육군	2003.10.20 ~ 2004.11.4
49	"	Mark P. Frudden	미 해군	1976.6.28 ~ 1976.10.31	67	"	조 영 래	한국 육군	2004.11.5 ~ 2006.12.6
50	"	John K. Singlaub	미 육군	1976.11.1 ~ 1977.5.22	68	"	김 용 기	한국 육군	2006.12.7 ~ 2008.4.21
51	"	Warren C. Hamm Jr.	미 해군	1977.5.23 ~ 1979.7.2	69	"	장 용 구	한국 육군	2008.4.22 ~
52	"	S. J. Hostettler	미 해군	1979.7.3 ~ 1981.7.12					

한군 판문점 대표부 간 대화는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활발한 남북 교류,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 대표단의 방북, 동해나 서해상에서 표류하던 북한 주민의 송환 문제 등 북한이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북한이 유엔사와 대화를 거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북한이 정전 체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국군 장성을 유엔사 측 군정위 수석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군정위 본회담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공산 측 군정위를 해체했지만 유엔사와 대화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북한은 군정위를 대신해 설치한 판문점 대표부를 통해 유엔사와 지속적으로 접촉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유엔사와 북한군 간의 대화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 군정위의 지속적인 설치 당위성과 향후 남북 관계 변화 등에 따라 운영 방향이 변화한다고 보십니까?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언급했듯이 군정위는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따라서 정전협정이 쌍방의 정치적 수준에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적당한 협정 중의 규정에 의해 명확히 교체될 때까지 군정위는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 군 장병과 국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비록 지난 55년간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정전 체제가 유지되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우리의 국

익을 지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운이 매우 좋았습니다. 유엔에서 창설 이래 최초로 유엔군을 파견해 북한군을 격퇴시켜 주었으며 유엔사가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우리와 함께 연합방위 체계를 구축,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탕 위에 우리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민주주의가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동티모르·아프가니스탄·이라크·레바논 등지에 우리의 국군을 파병해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는 로마 시대의 명장이며 전략가인 베제티우스의 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조그마한 것일지라도 아끼고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Defense

중립국감독위원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6·25전쟁의 정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국외로부터 한반도로 병력·장비·물자의 반입과 교체를 감독하고 군사정전위원회의 요청에 의해 비무장지대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정전협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사 활동을 위해 설치됐다(정전협정 제2조 36항~50항). 정전협정에 따라 4명의 고급 장교로 구성되며 이 중 2명은 유엔군사령관이 지명한 중립국, 즉 스웨덴·스위스가 그 나라의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나머지 2명은 북한과 중국 측에서 지명한 중립국, 즉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가 그 나라의 장교 중에서 임명하게 되어 있다. 여기서 ‘중립국’이란 6·25전쟁 당시 그 나라의 전투부대가 한국에서의 적대 행위에 참가하지 않은 국가를 말한다.

1953년 8월 1일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개시한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스웨덴·스위스 대표 캠프는 판문점 현 위치에서, 폴란드·체코슬로바키아 캠프는 판문점 인근 북측에 메인 캠프를 설치했다. 이들 국가는 특히 시찰소조를 구성, 남북한 각각 10개 지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임무는 정전협정 제13항 ㄷ목(한국 국경 외



로부터 증원하는 군사 인원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제13항 ㄹ목(한국 국경 외로부터 증원하는 작전 비행기, 장갑 차량, 무기 및 탄약을 들여오는 것을 금지한다) 및 제28항에 규정하고 있는 감독·감시·시찰 및 조사의 직책을 집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군사정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다시 말해 정전협정에 근거해 남과 북의 정전협정 이행 여부를 확인·감독하고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구성됐다. 그러나 북한은 중립국감독위원회 무실화 책동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1993년 4월 체코슬로바키아의 붕괴로 대표단은 북한에서 철수했으며 폴란드 대표단은 1995년 2월 본국으로 강제 추출됐다.

현재는 유엔군 측에서 지정한 스웨덴·스위스 국가 요원들만이 한국에서 중립국감독위원

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폴란드 대표단은 북한의 불법적인 추출 조치에 이렇듯 못하고 현재 본국에서 중립국감독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사와 협의, 연 1~2회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면서 중립국감독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북한은 정전협정 이후 40여 만건의 협정 위반 행위를 자행해 오고 있으며 협정에 명시된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임원들까지 일방적으로 추방하는 등 정전협정 무력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하지만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의해 창설됐으므로 정전협정이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기 이전까지는 존속돼야 한다. 또 정전 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중립국감독위원회 존속과 활동은 계속돼야 할 것이다.

전장 누비며 특종...국군 사기 드높여

■ 6·25전쟁 직후 국내외 언론의 보도 형태

국방저널 편집실
(kj1974@dema.mil.kr)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들은 국방부 출입기자들이었던 내신기와 일본 도쿄(東京) 주재 주일 미군사령부 출입기자인 외신기자로 구성돼 있었다.

전쟁 기간 동안 내신기자들은 언어 문제로 인해 주로 국방부 브리핑에 의존했고 외신기자들은 수많은 전장을 군인들과 함께 누비며 많은 이야기를 발굴해 냈다.

전쟁 초기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국내의 언론은 과연 6·25전쟁을 어떻게 보도했을까. 1990년 6·25전쟁 40주년을 맞아 한국언론연구원이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진석·김홍규 교수 등과 공동으로 펴낸 ‘한국전쟁의 동서 보도 비교’ 논문을 조사한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에 따르면 상황이 상당히 급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언론 대부분은 전쟁 직후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6·25 전쟁이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당일 경향신문을 시작으로 조선일보와 동아일보가 호외를 발행했는데 같은 날 정오 이선근(육군대령) 국방부 정훈국장이 “아침 5~8시 사이에 38선 전역에 걸쳐 북한군이 남침을 시작했다”고 발표한 담화를 보도했다. 하지만 오전 8시쯤에는 이미 개성이 북한군에 함락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는 다른 상황이었다.

이튿날인 6월 26일자에도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각각 전날과 같이 ‘이북 괴뢰 불법 남침/25일 조효(早曉) 38全線에 걸쳐’ ‘괴뢰군 돌연 남침을 기도’라는 1면 머리기사 제목에 이 국장이 발표한 담화를 내용으로 북한군의 남침 사실을 보도하기 시작했다.

국내 언론이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6월 26일자 일간지들이 전쟁 발발 사실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지만 기사 크기와 제목이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았던 것. 지금 생각대로라면 전면을 할애해도 모자랄 판국에 반이상이 전쟁 발발 이외의 다른 기사를 채운 상태로 발행됐다.

그러나 다음 날부터는 전쟁에 대한 기사의 비중이 점점 높아졌으며 1면은 물론 다른 면까지 관련 소식이 채워지기 시작했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국군 정예 북상 총반격전 전개’라는 제목 아래 ‘해주시를 완전 점령했다’는 국방부 보도과가 6월 26일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실었다.

조선일보도 ‘국군 일부 해주 돌입/적 사살 1580명, 전차 등 격파 58대’라며 국방부 보도과 발표를 전제한 뒤 이같이 보도했다. 하지만 일간지들의 이런 보도는 사실과 동떨어진 것이었다. 이미 6월 26일에는 의정부가 북한군 수중에 넘어간 뒤 창동 방어선마저 위태로웠고 6월 27일 새벽에 열린 비상국무회의에서도 대책 없이 정부를 수원으로 옮긴다는 방침만 세워진 상태였다. 즉, 국내 언론이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는 바람에 서울 시민은 피란 시기를 놓쳤고 시민들 또한 당시 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반면 외신은 전쟁 발발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상황을 본사에 타전했다.



지난 5월 22일 국방홍보원을 방문한 '군 보도 요원'(P.O·수정희·회장 강윤희)들이 국방일보 100호 발행 기념사진을 바라보고 있다. 군 보도 요원들은 1953년 3월 국방부 정훈국 보도하사관으로 선발된 뒤 각급 부대에서 생생한 아전 소식을 전했다. (사진=박홍배 국방일보 기자)

UP통신의 잭 제임스는 6월 25일 오전 9시 50분 “북한은 일요일 아침 전 경계선에서 전면 공격을 개시했다. 이곳 시간 오전 9시 30분, 서울 서북방 40마일 지역인 개성시가 9시에 함락됐고 웅진 남쪽 3, 4km 지역에서 적 부대가 발견됐다”며 본사에 알린 뒤 춘천 지역의 적 전차대 출현과 강릉 이남 동부 해안 지역의 전 단정 상황 감행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전했다.

그렇다면 당시 우리 언론은 왜 사실과 다른 ‘오보’를 했을까.

이에 대해 6·25전쟁 때 영국 로이터 통신 종군기자로 활약했던 지갑종(유엔한국 참전국협회장) 씨는 “전쟁에도 38선에서 남북한 간 무력 충돌이 종종 있었기에 전쟁 발발 초기 북한군이 서울까지 쳐내려오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해 사태의 심각성을 몰랐던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도 1987년 발간한 ‘한국전쟁’을 통해 “한국의 보도 담당 기관은 북한 남침 첫 소식을 접한 뒤 ‘서울이 함락된다면 만사가 끝장이다’라는 국민의 잠재의식을 감안해 민심 안정에 일차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결국 당시의 전황과 다른 방향의 보도를 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Defense

군번 10001은 이형근 대위... 첫 해외 파병은 태권도 교관단

■ 국군의 '최초' 기록에 담긴 도전과 발전의 역사



김병륜 국방일보 기자
(lyuen@dema.mil.kr)

‘최초’라는 말은 출발점이자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상징하는 말이다. 군뿐만 아니라 사회의 다른 여러 분야에서도 끊임없이 최초를 찾고 기념하는 것도 단순히 선후 관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새 출발의 의미와 함께 그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서일 것이다.

창군 이래 각 분야에서 최초 기록이 수립될 때마다 우리 군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한 단계 더 성장하고 한발 더 미래를 향해 나아간 우리 군의 역사가 그 최초의 기록 속에 녹아 있다.

우리 군의 역사를 장식한 ‘첫 번째’에는 미래를 향한 우리 군의 꿈이 담겨 있기에 더욱 소중하다. 또 최초의 기록 속에는 곱질을 깨고 나아가기 위한 눈물과 땀이 어려 있기에 의미는 세월이 지나도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다. 건군 60주년을 맞아 우리 군의 첫 번째를 찾아보는 것도 그 꿈과 도전, 눈물과 땀을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다.

자랑스러운 군번 1번의 주인공 (1946. 1)

군인의 삶은 군번을 받으면서부터 시작

된다. 1946년 1월 한국군의 모체인 조선국 방정비대가 창설된 직후 군사영어학교에서는 이력서 접수순에 따라 장교 군번을 매겼다. 그 결과 첫 번째 군번 10001은 이형근 대위에게 부여됐다. 이후 이형근 장군에게는 평생 ‘군번 1번’이라는 영광스러운 수식어가 붙게 됐다. 창군 초기 병사들의 군번은 100만 단위로 군 최초 부대인 제1연대 110000×, 2연대 120000×와 같이 연대 수 앞에 육군 표시인 1자를 넣는 방식으로 번호가 부여됐다.

백두산함의 최초 해전 (1950. 6. 25)

창군 초기 해군은 함정 부족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무엇보다 창군 초기의 해군은 수상전을 수행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정규 전투 함정이 단 한 척도 없었다.

결국 해군참모총장 손원일 제독은 1949년 6월 전투용 함정을 구입하기 위한 성금 모금 운동을 벌였다. 그렇게 모은 국민과 해군 장병들의 성금 1만8000달러로 1949년 10월 7일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서 해양 학교 실습선 ‘엔사인 화이트헤드’(Ensign Whitehead)호를 구입, 백두산함으로 명명했다. 배수량 450톤급의 백두산함은 오늘날의 초계함(PCC)보다 더 작은 고속정 크기의 군함이었지만 우리 해군 최초의 전투함으로 역사에 뚜렷한 이름을 남기게 된다.

백두산함은 1950년 1월 24일 하와이의 호놀룰루 항에 도착, 3인치 주포를 장착했다. 진해 기지에 백두산함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1950년 4월 10일, 전쟁이 발발하기 불과 두 달 전이었다.

백두산함은 1950년 6월 25일 밤 부산 앞 바다에서 북한 수송선 1척을 격침하는 전과를 올렸다. 6·25전쟁 때 벌어진 최초의 해전인 대한해협 해전의 주인공이 바로 백두산함이었다. 당시 북한 수송선에는 북한 게릴라들이 탑승하고 있었다. 백두산함이 적 수송선을 발견·격침한 덕에 우리 군 후방 보급 기지의 중추인 부산항은 6·25전쟁 첫날부터 대혼란에 빠지는 위험을 피할 수 있었다. 국민들의 소중한 성금으로 구입한 백두산함은 최초의 전투함과 첫 해전의 주인공이라는 최초 기록을 두 가지나 가진 역사적 군함인 것이다.

공군 최초 전투기의 첫 출격 (1950. 7. 3)

우리 육군이 창군 초기 전차 한 대 없는 설움을 겪었다면 공군은 전투기 한 대 없는 아픔을 견뎌야 했다. 1949년 창설된 공군은 L-4·5 연락기나 훈련기 등을 보유했을 뿐 6·25전쟁이 시작될 때까지 단 한 대의 전투기도 보유하지 못했다. 1950년 6월 서울을 내습한 북한 야크 전투기가 우리 공군의 심장부인 김포비행장에서 기관



해군 최초의 전투함이자 6·25 첫 해전의 주역인 백두산함.



전선으로 출격하는 공군 최초의 전투기 F-51.

충 소사를 가할 때 우리는 전투기 없는 아픔을 곱씹어야 했다. 하지만 그 아픔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에게 전투기를 원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 미측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정렬 공군참모총장은 F-51 무스탕 전투기 도입 준비 차원에서 1950년 6월 26일 10명의 조종사를 선발, 일본 이타즈케(板付)의 미군 기지로 급파했다. 이들 공군 조종사들이 7월 1일 일본에서 F-51을 인도받은 것이 우리 공군 전투기 역사의 출발점이다.

전투기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달간의 훈련을 받아야 했지만 전쟁의 위기를 외면할 수 없었던 우리의 보라매들은 7월 2일 한국에 돌아온 후 단 하루 만인 7월 3일 첫 출격을 감행해 강원도 삼척 지구와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적 전차 2대, 차량 2대, 적 병 35명을 사살했다. 자랑스러운 ‘빨간 마후라’의 전설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육군 최초의 전차 M36 도입 (1950. 11. 29)

6·25전쟁 개전 초 우리 군에는 단 한 대의 전차도 없었다. 전차를 제공해 달라는 우리 군의 요구에 대해 미 군사고문단은 “한반도의 지형에는 전차가 부적합하다”는 말로 거절했다. 1950년 6월 불법 남침의 선봉에 선 북한의 T-34 전차 때문에 호된 ‘전차 신고식’을 치른 이후에도 우리 군에는 전차가 제공되지 않았다.

전차에 대한 숙원을 풀 것은 1950년 11월 29일 경남 동래에 위치한 육군종합학교에 전차과를 설치하게 되면서부터다. 이때 미군으로부터 교육용으로 도입한 전차가 바로 M36이다. 최초의 전차 전투부대가 탄생한 것은 1951년 10월 5일 51·52 전차중대가 창설되면서부터다. 이후 M36 전차는 육군 보병들을 지원하면서 전방에서 맹활약을 펼쳤다. M36 전차는 미군에서 대전차 운반차로 분류되기도 하는 등 전형적인 의미의 전차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지만 우리 군 기갑 역사의 첫머리



국군 최초 해외 파병의 역사를 개척한 제1이동외과병원의 환송식 모습.

를 장식한 자랑스러운 주인공으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다.

감격의 순간, 첫 해외 파병 (1964. 9. 11)

1964년 9월 11일 제1이동외과병원 요원 130명과 태권도 교관단 10명이 탑승한 해군 상륙함이 부산항을 출항, 베트남으로 향했다. 1948년 대한민국 국군이 건군된 이후 16년 만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첫 해외 파병의 현장이었다.

다음 해인 1965년 3월에는 비둘기부대가 베트남에 정식 파병되면서 파병 규모는 더욱 확대됐다. 1965년 8월 13일에는 전투사단 베트남 추가 파병 동의안이 마침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1965년 10월 9일 해병대 청룡부대가 베트남 퀴논에 상륙했다. 건군 이래 최초의 전투병 해외 파병이 성사된 것이다.

첫 파병 이래 1973년 3월까지 8년 6개월에 걸쳐 연인원 32만 명에 달하는 국군 장병들이 베트남 땅을 밟았다.

특히 전투가 가장 격렬했던 1968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총 5만여 명을 파병, 55만 명을 파병한 미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력을 투입했다.

성과도 컸다. 참전 기간 동안 우리 군은 총 1170회의 대규모 작전과 55만 6000회의 소부대 작전을 전개, 적 사살 4만 1000명이라는 전과를 올렸다. 한반도를 벗어나 세계로 향하는 우리 군의 새 역사가 쓰여진 것이다.

최초의 PKO로 국제사회 공헌 (1993. 7. 30)

1991년 9월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은 국군 파병 역사의 새로운 전기가 됐다. 한국군이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해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국군은 1993년 7월 소말리아에 공병부대를 파견,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처음 참여한 이후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한국군 최초로 PKO에 참여한 상륙수부대는 1993년 7월 30일 현지에 도착한 이래 연인원 504명이 참여, 현지 유엔 평화유지군(PKF) 사령부가 부여한 도로 보수 공사 임무와 주민 지원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또 현지 주민들에게 국가의식과 자립의식을 심어 주려는 순수한 열정으로 상륙수부대원들이 시작한 사랑의 학교·기술학교 운영은 한국인의 박애정신을 널리 알린 인도주의적 국제 활동으로 평가 받았다.

소말리아 평화유지활동에 참여한 상륙수부대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림으로써 우리 군이 세계 어느 곳에 파병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는 계기가 됐다.

조국 수호의 차원을 넘어 세계 평화에 공헌하는 국군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Defense

국민의 가슴속에 영원히 간직된 명예

■ 국군의 애국애족정신 알리는 기념일은

조진섭 국방저널 기자
(digitalc@dema.mil.kr)

올해는 건군 60주년으로 10월 1일 국군의 날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마련돼 있다. 하지만 군을 대표하는 기념일인 국군의 날 외에도 군에서는 다양한 기념일 행사를 갖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기념행사를 모아 소개한다.

육탄10용사 추도식 (5월 4일)

6·25전쟁이 일어나기 1년 전인 1949년 5월, 개성의 송악산 일대 3개 고지(292·유엔·비둘기 고지)가 불법으로 침공한 북한군에게 빼앗기자 이를 탈환하기 위해 자원한 특공대 용사들이 포탄을 가슴에 안고 적 참호에 뛰어들어 장렬히 산화했다. 당시 살신구국으로 고지 탈환에 큰 공을 세우고 국군 전사에 길이 빛나는 신화를 남긴 특공대 용사는 서부터 이등상사(육군소위로 추서) 등 특공 요원 10명(일명 육탄10용사).

이날을 기리기 위해 육탄10용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매년 5월 4일을 전후해 경기도 파주시 소재 통일공원 육탄10용사충용탑 앞에서 추도식을 갖고 있다.

특히 육군은 육탄10용사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고 부사관들의 사기 양양을 위해 2000년 11월 13일 '육탄10용사상'을 제정, 이듬해부터 매년 육군 전투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중사를 대상으로 선발해 육탄10용사상을 수여하고 있다.

특전의 날 (4월 1일)

6·25전쟁 이후에도 북한은 대남 적화전략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 공산화를 위해 육상은 물론 해상에서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6·25전쟁 당시 군번 없이 활약했던 유격부대 용사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특수부대 창설에 나서게 됐다.

마침내 1958년 4월 1일 육군본부 특전감실은 단본부와 2개 작전 지역대로 편성된 '제1전투단'을 창설함으로써 특전부대의 전신이자 모체가 되었다. 초대 단장으로는 백문오 대령이 부임했다.

제1전투단 창설은 전장 공간을 적 후방까지 확대시켰다는 점에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였다.

특전사는 특전부대 전신이자 모체가 되었던 제1전투단 창설일인 4월 1일을 전후해 '특전의 날' 기념식을 갖고 있으며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았다.

여군의 날 (9월 6일)

"조국을 구하는 데는 남녀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국군의 보석이라 일컬어지는 여군은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6일 '여자의용군교육대'라는 이름으로 부산에서 창설됐다.

전쟁으로 부족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여군을 모집했는데 500여 명 모집에 3000여 명의 자원이 몰려 구국의 일념만큼은 남자 못지않음을 보여줬다.

여자의용군교육대에는 처음 503명이 입교, 최종 여군 1기 491명이 배출됐으며 제복이 없어 남자 군복을 입었다. 이들은 전쟁에 필요한 훈련을 이수

한 후 육군본부와 첩보대 등에 배치돼 행정 업무 및 첩보 수집, 선무 심리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등 눈부신 활약을 펼쳤다.

여군 창설 기념식은 3주년째인 1953년 9월 6일 육군본부 광장에서 손원일 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 백선엽 대장, 그 외 군장성 및 군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으며 여군기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여군과장인 김현숙 대령에게 수여됐다. 그 후 여군의 날 행사는 근무공자를 포상하고 국방여성 잠재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개최됐다.

해군 창설 기념일 (11월 11일)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자 조국의 해양 수호에 관심이 많았던 손원일은 정공모·김영철·민병중·변택주 등과 함께 해사대를 결성했으며 같은 해 9월 30일 해사보국단과 통합해 해사협회로 개칭됐다.

해사협회는 그해 11월 1일 미 군정청과 협의를 거쳐 200명의 인원으로 해안경비대를 조직, 사령부를 진해에 두고 사관학교를 설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해군의 모체가 되는 해방병단이 탄생하게 됐다.

해방병단 창설식은 1945년 11월 11일 서



6·25전쟁 발발 직후 자원 입대한 여자 의용군들이 거리를 행진하고 있다.



특전부대 전신인 제1전투단 창설기의 부대 모습.



해병대 창설 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이 장병들을 사열하고 있다.

을 종로구 관훈동 옛 충훈부 건물에서 거행됐으며 1946년 1월 18일 미 군정청으로부터 정식 군사 단체로 인정받았다.

당시 한자로 표기해 선비 사(士)자 두 개가 나란히 겹쳐진 형태인 11월 11일을 해군 창설 기념일로 정한 것은 초대 해방병단 단장인 손원일 제독이 세계 각국의 해군을 통해 ‘해군은 곧 신사’라는 모습을 반영하며 결정된 날짜이다.

이로 인해 해군은 해방병단 창설식 날인 11월 11일을 해군 창설일로 정해 지금까지 기념하고 있다.

해병대 창설 기념일 (4월 15일)

우리 군에 해병대가 창설된 것은 1948년 10월 전남 여수·순천 지구에서 발생한 육군 제14연대의 반란 사건이 계기가 됐다.

사건이 발생하자 육군은 폭동 진압을 전개했으나 육군의 진압작전을 지원했던 해군은 제반 여건과 능력의 한계성 때문에 해상으로 도주하는 소수의 반란군을 진압했을 뿐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후 해군 지휘부는 작전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과정에서 해상으로부터의 반란군 진압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리적 여건과 여수·순천 사건에서 보듯이 수륙양면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1949년 4월 15일 경 남 진해의 덕산비행장 격납고에서 상륙작

전을 주 임무로 하는 해병대를 창설, 이날을 현재까지 기념하고 있다.

공군 창설 기념일 (10월 1일)

한국 공군의 전신은 1948년 5월 5일 경기도 수색에서 통위부 직할부대로 창설된 ‘육군항공부대’이다.

육군항공부대는 같은 해 6월 23일 통위부 직할부대에서 조선경비대로 예속이 변경됐으며 7월에는 ‘항공기지부대’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해 9월에는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 공군 창설의 기틀을 마련했고 명칭도 ‘육군항공사령부’로 격상됐다.

당시 조선경비대와 조선해안경비대는 각각 육군과 해군으로 개칭됐지만 육군항공사령부라는 명칭이 말해 주듯 공군은 그때까지도 육군 예속을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공군 독립 기운은 무르익어 1949년 6월 28일 육군본부에 항공국이 설치되고 마침내 같은 해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직제’에 따라 육군으로부터 분리 독립된 공군이 창설됐다.

공군은 창설일이 국군의 날과 같은 10월 1일이기에 그동안 따로 행사를 갖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창설 60주년이 되는 해이므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조종사의 날 (7월 3일)

공군본부가 1999년에 발행한 ‘공군 50년사’를 보면 F-51 전폭기에 의한 역사적인 첫 출격은 대구 기지에서 1950년 7월 3일에 이루어졌다.

개전 초기 적기는 200여 대였지만 유엔 공군 참전과 한국 공군 전투기의 등장으로 불과 2주일이 지나기도 전에 제공권을 장악했다.

이후 미 공군기들은 북한군의 통신과 보급로를 마비시키기 위해 주로 38선 이북의 군사 목표를 공격했고 한국 공군은 지상군을 엄호하며 38선 이남에서만 활약했다.

7월 3일 1차 출격한 F-51 편대는 육군의 요청에 의해 동해안의 흑호·삼척지구에 상륙해 온 적 지상군을 발견, 이를 기총소사해 적병 다수를 사상케 하고 연료집적소 1개소를 불태웠다.

또한 영등포 노량진 지구에 집결해 있는 적 지상군에 대지 공격을 감행, 적 탱크 2대와 차량 3대를 격파하고 탄약집적소 1개소를 불태웠으며 적병 35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렸다.

공군은 F-51무스탕의 첫출격일인 1950년 7월 3일을 기념하고 6·25 출격 조종사들이 가슴에 품었던 ‘필승의 신념’을 계승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날을 ‘조종사의 날’로 선포하고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공군회관에서 첫 기념식을 가졌다. Defense